



미 증시, CPI 쇼크로 급락

미국 증시 리뷰

13 일(화) 미국 증시는 예상치를 상회한 1월 CPI 결과 이후 금리인하 전망 후퇴, 미 국채 10년물 금리 4.3%대까지 상승, 고점 인식으로 인한 기술주 약세 등 위험회피 심리 확산되며 급락 (다우 -1.35%, S&P500 -1.37%, 나스닥 -1.8%). 전업종 하락, 헬스케어(-0.9%), 필수소비재(-1%), 산업재(-1%)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 경기소비재(-2%), 부동산(-1.8%), 유틸리티(-1.7%)의 낙폭이 가장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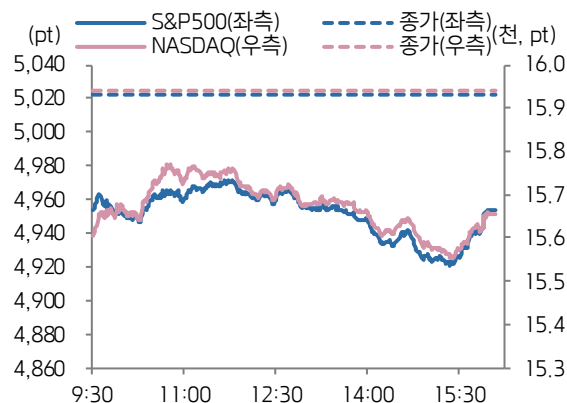
미국 1월 CPI YOY 3.1%(예상 2.9%, 전월 3.4%), MOM 0.3%(예상 0.2%, 전월 0.2%) 기록, 근원 CPI YOY 3.9%(예상 3.7%, 전월 3.9%), MOM 0.4%(예상 0.3%, 전월 0.3%) 기록하며 예상치 모두 상회.

MOM 에너지 전월 -0.2% → -0.9%, 중고차 0.6% → -3.4%, 의류 0.0 → -0.7% 등 하락전환하며 상품물가 하락을 주도. 그러나 주거비 0.4 → 0.6%로 상승폭 확대하며 전체 물가 상승분의 2/3 기여. 또한 여행수요 증가로 인해 항공 0.9% → 1.4%, 자동차보험 1.7% → 1.4% 등 전체 운송 서비스 0.1% → 1.0% 상승한 점이 서비스 물가 상승 주도.

전미부동산협회(NAR) 측은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을 방해하는 "안고함의 가장 큰 하나의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 임대료 상승률은 낮은 한자릿수 대로, CPI의 주거비는 6개월마다 해당 시점에 주거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갱신되지 않은 임대료와 갱신된 임대료가 혼재해 실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비탄력적임으로 실제 시장의 임대료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 1월 주거비의 상승은 지난봄 강력한 임대료 상승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장에 주택 물량이 적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평가. 특히 재고가 부족한 단독주택 시장의 경우 자가주거비(OER)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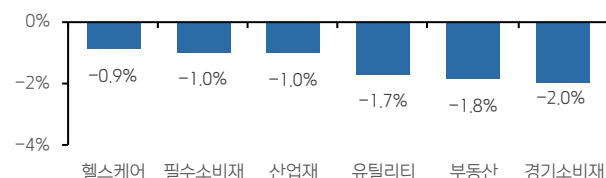
미국 의회 상원이 950억 달러(약 127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 패키지를 승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600억 달러, 이스라엘에 대한 141억 달러의 안보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 92억 달러,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 지원 48억 달러 등이 포함. 앞서 상원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지원과 국경통제 강화 등에 소요될 총액 1180억 달러(약 158조 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 패키지를 마련. 그러나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이견을 보이자 국경통제 강화 관련 내용을 뺀 새로운 안보 예산 수정안을 추진.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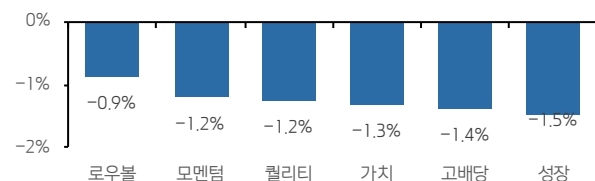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49.64	+1.12%	USD/KRW	1,327.97	-0.26%
코스피 200	357.38	+1.16%	달러 지수	104.87	+0.67%
코스닥	845.15	+2.25%	EUR/USD	1.07	+0.01%
코스닥 150	1,336.73	+2.33%	USD/CNH	7.23	+0%
S&P500	4,953.17	-1.37%	USD/JPY	150.81	+0.01%
NASDAQ	15,655.60	-1.8%	채권시장		
다우	38,272.75	-1.35%	국고채 3년	3.347	+4.3bp
VIX	15.85	+13.78%	국고채 10년	3.445	+4bp
러셀 2000	1,964.17	-3.96%	미국 국채 2년	4.658	+18.4bp
필라. 반도체	4,468.18	-2.01%	미국 국채 10년	4.314	+13.5bp
다우 운송	15,785.77	-2.62%	미국 국채 30년	4.463	+8.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689.28	-1.2%	WTI	77.87	+1.24%
MSCI 전세계 지수	747.89	-0.01%	브렌트유	82.58	+0.71%
MSCI DM 지수	3,281.01	-0.01%	금	2005.8	-1.34%
MSCI EM 지수	996.06	+0.05%	은	22.15	-2.69%
MSCI 한국 ETF	62.71	-2.7%	구리	371.1	-0.3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8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1.6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39.7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1 월 CPI 쇼크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2. 금리 상승이 고밸류에이션 주식들의 투자심리를 약화시킬 지 여부 3. 저 PBR 업종들의 수급 변동성 확대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매번 증시의 단기 변곡점 역할을 하는 미국의 CPI 는 1 월 수치가 헤드라인(YoY 3.1% vs 컨센 2.9%)과 코어(YoY, 3.9% sv 컨센 3.7%) 모두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쇼크를 기록. 얼마전 CPI 개정에서 가중치가 34.4%에서 36.2%로 상향된 주거비의 물가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YoY 12 월 6.2%→) 1 월 6.0%, MoM 12 월 0.4% →) 1 월 0.7%), 2024 년 첫 인플레이션 지표는 증시에 부정적으로 다가온 상황. 최근 연준 위원들 역시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향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해왔던 만큼, 이번 결과는 연준 입장에서도 그리 반길만한 일은 아님.

하지만 1 월 CPI 결과 값만 가지고서 증시 예상 경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우선 디스인플레이션 전제는 유효하다는 것이며, 이는 1 월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도 12 월에 비해 하락하고 있기 때문(헤드라인 12 월 3.4% →) 1 월 3.1%, 코어는 3.9%로 유지). 또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모델 상 2 월 헤드라인과 코어 수치가 각각 3.0%, 3.7%대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

더 나아가, 시장이 인플레이션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연준 정책 전환과 직결됐기 때문. 애초부터 “3 월 금리인하 시작 + 연내 6 회 인하”라는 뉴스플로우상 자주 접했던 전망 자체가 과도하다는 것이 국내외 증시 참여자들의 보편적인 의견이었음. 관건은 “상반기 인하(6 월 유력) + 연내 3~4 회 인하”의 가정이 바뀔지 여부로써, 이 가정이 바뀌게 되면 올해 예상 연간 증시경로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Fed Watch 상 연내 금리인하 횟수는 CPI 발표 전 6 회에서 현재 4 회로 컨센서스가 변화). 하지만 이 같은 수정 작업 여부는 2 월 고용과 2 월, CPI, 그리고 연준의 점도표 및 경제전망, 파월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3 월 FOMC 까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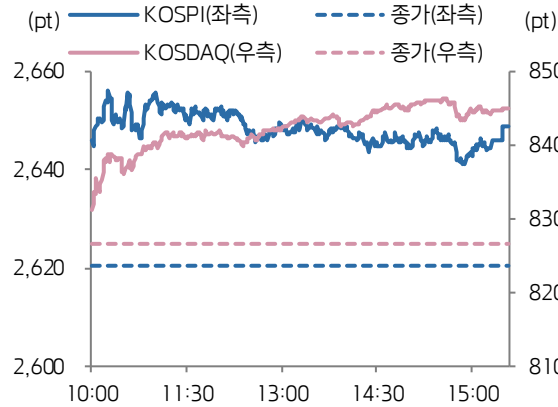
이번 CPI 여진이 증시에 증간중간 가격 되돌림을 만들어낼 소지가 있기는 함. 하지만 이미 CNN의 Fear & Greed index 상 극단의 탐욕에 영역에 진입하는 등 단기 과열 신호가 등장한 상태였기에, CPI 가 조정의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면 될 것. 사실상 데이터 의존적인 만큼, 향후 발표되는 소비, 고용, 인플레 지표 변화에 따라, 전일과 같은 시장 분위기가 얼마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음.

결론적으로, 지난 1 월 24 일 발간자료 “입스(YIPS)의 극복”에서 제시했듯이, “1 분기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 장세 → 2 분기 이후 상승 추세” 전망을 유지.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9~10 월처럼 매크로 악재로 인한 가격 조정이 재현될 확률은 낮으며, 적어도 3 월 FOMC 까지는 기간 조정에 그칠 것으로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연휴기간 동안 ARM, 엔비디아 등 AI 중심의 미국 증시 강세를 일시에 반영하면서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 일부 저 PBR 주들의 차익실현물량이 출회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반도체 중심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1.1%, 코스닥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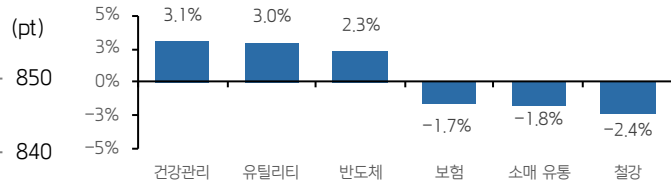
금일에는 1 월 인플레이션 지표 쇼크에 따른 달러 및 금리 상승 등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 증립 이하의 추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물론 미국 빅테크 등 고밸류 주식 중심의 조정, 국내 저 PBR 업종에 남아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등을 고려하면, 저 PBR 업종들이 오늘 장 대응에 유리할 수 있기는 함. 하지만 국내 증시는 저 PBR 장세 출현 후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저 밸류 주식들이 사실상 고밸류 주식의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은행, 자동차 등 저 PBR 업종들의 수급 변동성 확대 예상(WMI 500 지수의 12 개월 선행 기준, 순수가치지수의 PBR 은 1 월 말 대비 12.0% 상승 vs 순수성장지수 PBR 은 1 월말 대비 2.8% 상승).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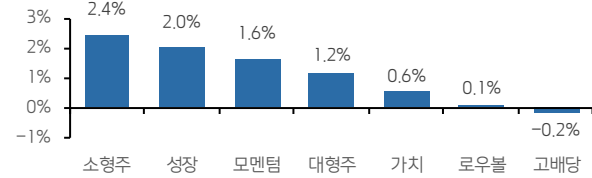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